

시끌벅적 e-스타



7천마리 개미들이 그린 김태희

한 때 가장 흔하 볼 수 있었던 친근한 동물 개미. 도심에서 보기 무척 힘들어진 개미가 인터넷에 나타났다. 예전처럼 '개미가 자기 몸의 몇 배나 되는 먹이를 물고 어디로 가는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도 없다. 2분 44초만 지켜보면 전모가 드러난다. 개미를 이용해 그린 텔레비전 김태희 초상화가 화제다. 지난달 19일 유튜브(www.youtube.com) 사이트에 올라온 뒤 인기를 끌었던 개미 7천마리를 사용한 헐리우드 스타 조니킵의 초상화 동영상. 이를 본편 '속편' 성격이다. 5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뒤 조회건수도 3만 여건에 달했다. 투명한 용액을 발라 도화지에 붓질을 하거나 하나둘씩 풀려온 개미들이 도화지를 채우더니 시간이 지나 개미속에서 김태희의 얼굴 윤곽이 드러나는 장면 등 전체적인 영상 즐겨보는 조니킵 동영상에서 빌려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하다.

하지만 속편이 낫다는 네티즌이 더 많다. 판 길로 세지 않고 김태희 머리, 코, 입에 풀려들면서 윤곽을 만들어내는 개미들, 상상을 초월한다. 동영상에 사용된 개미 수는 일본 왕개미(13mm)와 곱개미(5mm) 등 약 7천마리. 개미들의 움직임이나 습성을 관찰하는데 15일이 걸렸고 촬영하는데 49시간이 걸렸다고 제작자는 밝혔다. 제작에 사용된 개미를 보관하는 통을 보여주기나 도화지에 붓질을 하다 붓에 붙은 개미를 떼어내는 고충(?)도 영상에 담아 고생한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네티즌 반응도 다양하다. "그 많은 개미들이 어디서 모은 겁니까", "발상이 아주 좋습니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개미가 불쌍하다. 못 봐 주겠어요'라는 비판적 댓글도 올라오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한국의 전설에 여우가 너무 오래 살게 되면 꼬리가 하나 둘 늘어나 마침내 아홉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고양이와 아홉 번 산다는 영국의 오래된 이야기와 비교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뉴 런던 극장에서 20년 넘게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캐츠는 그런 고양이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대장고양이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약당고양이 술집고양이 등, 그들의 이야기는 음악 춤 의상 조명 무대 등에서 흡입을 갖기 별로 없다.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명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작품들은 세계 최고라는 단어가 부속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에비타' '오페라의 유령' '혹인 울헤' 등의 로이드 웨버 작품들과 더불어 캐츠 역시 세월이 흘러도 모차르트의 오페라처럼 되어 남을 것이다. 영화화된 옛 제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유럽의 대도시를 어떤 시인은 늙은 창녀와 같다고 했다. 캐츠에 등장하는 창녀고양이 '그리자벨라'의 '메모리'라는 노래는 그런 의미의 실존을 연상하게 한다. 원래 '미레이 마피유'의 '우리의 추억(Nos Souvenir)'이라는 상송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내일의 기대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 노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로 익숙할 것이다. 클래식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처럼 '메모리'라는 노래 역시 세월이 흘러도 고전이 되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다 해도 삼삼들 곁에 남아 있을 명곡이다.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깊은 밤 거리는 숨 죽이고 Has the moon lost her memory 달님은 추억도 잊은 채 She is smiling alone 흐로 웃고 있는데 In the lamp light 가로등



아래 the withered leaves 마른 잎들이 collect at my feet 발밑에 쌓여가고 And the wind begins to moan 바람은 중얼거려네 memory all alone in the moonlight 달빛 아래 외로운 추억 I can smile at the old days난 지난날에 웃을 수 있었어요 I was beautiful then 나는 아름다웠죠 I remember the time 나는 기억해요 I know what happiness was 행복이 뭔지 알고 있었죠 Let the memory live again 추억이 되 살아나오 Every street lamp 모든 가로등은 seem to beat a fatalistic warning 치명적인 경종을 치고 있는 것만 같고 someone mutters the street-lamp gutters 누군가 가로등아래 흡풍에서 중얼거

뮤지컬 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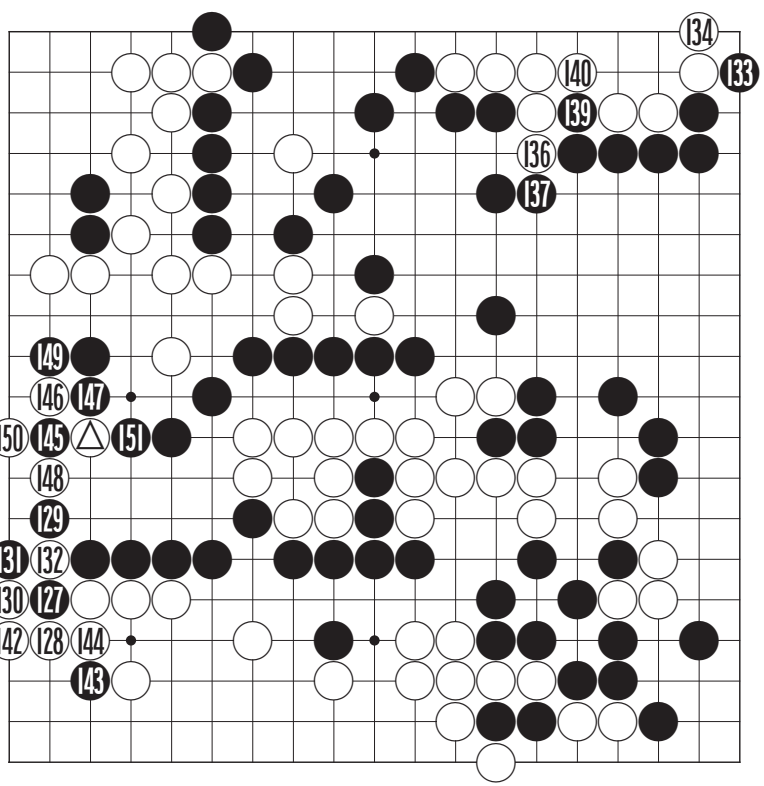
리고 and soon it will be morning 아침이 오겠죠 Day light I must wait for the sunrise 아침을 기다려야 해요. (후략) 노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끝을 맺는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동행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이 사람인 한 거기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은 고단하거나 지루한 가운데 있으며 행복한 순간은 몇 되지 않는 것인가. 니체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라 했다. 그들의 희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의 고통을 참아야 하는가 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속명처럼. 어쨌든 무대 앞에서 거 거 펼쳐지는 모든 것을 호흡하는 일은 CD 또는 DVD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뮤지컬과는 차원이 다르다. 실황 공연은 오랜 시간이 불황인 이 시대에 적지 않은 희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의 도시를 꿈꾸는 광주와 우리들의 시대에... <음악 칼럼니스트>

80. 무장 세력 탈레반으로부터 풀려난 한국인 19명이 피랍 후 45일만인 2일 귀국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출국한 지 51일만에 고국 땅을 다시 밟은 것입니다. 봉사단원 23명은 7월19일 이 나라 키프에서 칸다하르로 가던 중 납치됐으며 지난달 13일 2명이 처음 석방된 데 이어 이번에 19명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피랍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①아프가니스탄 ②우즈베키스탄 ③파키스탄 ④카자흐스탄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6일(음 7월 25일 癸卯)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변화무쌍한 패싸움 9보(127~151)

백 129로 호구쳐 패를 노리고 있다. 이창준 5단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고 생각했는지 130으로 단수를 친다. 이 수는 초강수이며 승부수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팻감은 흑이 많아서 이 수는 의문이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두어 흑 한점을 제압해야 했다. 좌하귀는 흑 2로 붙어 오더라도 3으로 내려서고 흑 6 때 백 7로 되짚히는 수가 있다. 9까지 아무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쉬운 수를 놓치고 기세를 고집하다가 느닷없는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패는 요술장이다'라는 말처럼 패는 변화가 무쌍하다. 불리한 김영수 5단으로서 반가운 패인 것이다. 결국 백 142로 물러서고 이번에는 이창준 5단이 150까지 거꾸로 패싸움을 거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국 기사 12명이 지난 4일 대전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1회전(32강전)을 통과했다. 이날 김기용 3단이 초치훈 9단을 꺾은 것을 비롯해 박정환 2단이 일본의 천원 고노리 9단을, 한상훈 3단은 이번 대회 와일드카드 지명자 마사오촌 9단을 반집자로 제압, 16강에 진출했다. 2회전은 6일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86> I'm just looking 저는 그저 보기만 할 거예요 A: This is a suitable place to buy some presents for your family. don't you think so? B: Yes. why don't we look around first? C: Can I help you, madam? D: Oh, I'm just looking, thank you.

오하오우 니혼고 <986> ワイシャツがしわくちゃですね. 와이셔츠가 우글쭇글하군요 A: 早見(はやみ)さん, ワイシャツがしわくちゃですね。 どうしたんですか。 B: 家内(かない)がアイロンを掛(か)け忘(わす)れちゃってね。 A: それで仕方(しかた)ないからそのまま着て来たんですね。 B: そのとおり, ところで, 君(きみ)のスカートもしわになってるよ。

니하오 쑹구위 <176> 再吃点什么 덜 더 드실래요? A: 各位, 再吃点什么? Céwèi zài chī diǎn shénme? B: 吃好了, 谢谢。 Chī hǎo le xièxie. C: 再吃点什么? Zài chī diǎn shénme? D: 吃饱了, 不要了。 Hē hǎo le, bú yào le.

한자 이야기 <603> 焦眉(초미) 불탈 초, 눈썹 미 초미(焦眉)는 눈썹을 태운다는 뜻으로 잠시도 여유를 둘 수 없는 매우 다급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말은 불해선사(佛慧禪師)의 제자가 "선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다급한 상태가 많을 것인데, 어느 경지가 가장 다급한지?"하고 질문하자, 선사가 "그것은 눈썹을 태우는 일(火燒眉毛)이다."라고 대답한 것에서 나온다.(五燈會元) 이 '화소미(火燒眉毛)'가 변하여 '소미지급(焦眉之急)'이 되었고, 다시 변하여 '초미지급(焦眉之急)'이 되었고, '초미(焦眉)'만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눈썹에 불이 붙은 상황은, 눈썹 근처의 눈은 물론이고 얼굴과 머리털에 화상을 입혀 생명이 위험해지게 됨을 적시(揭示)한 것이다. 이 말을 남긴 불해선사는 만년(晩年)에 왕명으로 대장군 지해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사문에게 "왕명을 받들어 주지로 가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 수행에 힘쓰는 것이 옳으냐?"하고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계(偈)로 쓴 다음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즉 출세보다는 수행에 힘쓰는 승려의 본분으로 지켰던 것이다.